

No.33

Japan Weekly Digest

2010. 5. 3 ~ 5. 10

□ 금주의 이슈

- 한국, 원자력발전소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 이창렬 前삼성재팬 사장, 한일공동시장 창설 강조
- 한·중기업, 일본가전시장 진출 본격화

□ 일본 정재계 소식

- 정부,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 규모 확대
- 국가전략상, 오자와 간사장 진퇴문제 언급
- 국토교통상, 베트남 신칸센 유치를 위해 자금지원 등 제안
-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개최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나오시마 경산상, 인도와 원자력협력 워킹그룹 설치
- 경산성 탄소발자국(CFP) 국제표준화 작업 본격화
- 3D영상 기술 국제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성
- JFE엔지니어링, 초고속 충전시스템 개발 판매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일본의 아시아거점 종합전략, 경제산업성(2010.5)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한국, 원자력발전소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한국이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5일자 아사히신문에서 크게 보도
 - 세계적인 원전수요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2030년까지 80기 수출, 세계 점유율 20%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수출전략을 상세히 소개
 - 이 구상이 실현되면, 2030년까지 1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을 27조원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세계원자력협회는 한국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원자력수출 국가로 지정
- **이창렬 前삼성재팬 사장, 한일공동시장 창설 강조**
 - 삼성사회봉사단 이창렬 사장(前삼성재팬 사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공동시장”의 창설을 강조하였음
 - 李 사장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구 감소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 통관업무의 간소화 등을 통해 한일 공동시장을 조속히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
 - 그 밖에 사람과 물건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면 시장이 커지고 기업간의 협력도 증가하여 서로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지적
 - 또한, 일본인과 한국인은 습관이나 한자의 사용 등 공통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성격도 잘 맞고 다른 나라보다 협력하기 쉽다고 언급
- **한국과 중국기업 일본가전시장 진출 본격화**
 - 일본경제신문은 3일, 「아시아 가전, 일본 대공세」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중국기업의 일본가전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
 - 한국 LG전자, 중국 하이얼이 일본 가전기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가격 경쟁으로 이미 고전하고 있는 일본 가전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
 - 중국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국기업은 일본제품과 비슷한 품질에 가격도 일본보다 싸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기업의 재빠른 움직임이 일본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 규모 확대**
 -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아프리카 지원 정책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각료급회의가 2일, 탄자니아에서 개최되었고, 의장국인 일본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
 - 오카다 외무장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을 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8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표명
 - 내년까지 보건, 위생분야에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세계에이즈·결핵·말라리아 기금에 2.4억 달러 지원을 약속
- **국가전략상, 오자와 간사장 진퇴 문제 언급**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센고쿠 국가전략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사건으로 기소에 상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본인이 지금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고 언급, 암묵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센고쿠 전략상은 「참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오자와 간사장이 당을 위해 충분히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언급
- **국토교통상, 베트남 신칸센 유치에 위해 자금 지원 등 제안**
 -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3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통부장관과 회담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
 - 마에하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칸센방식이 도입되면 일본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
 - 국가전략상도 일본기업의 베트남 신칸센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인재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
-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개최**
 - 한국, 중국,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3개국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
 - 3국의 FTA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내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회의 개최 예정

○ 나오시마 경산상, 인도와 원자력협력 워킹그룹 설치

-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은 인도에서 “일본-인도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했다고 발표
- 일본은 기술지도, 기술지원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원자력발전소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목적
- 양국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원자력 분야와 풍력발전에 관한 기술지원에 대해서도 합의된 것으로 밝혀짐

○ 경산성 탄소발자국(CFP) 국제표준화 작업 본격화

- 경제산업성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2)량으로 환산 표시하는 「탄소발자국(CFP)」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
- 경제산업성은 2011년까지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산출 방법이 어렵고 △위장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기관의 인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과제도 많음

○ 3D영상 기술 국제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성

- 경제산업성은 3D 입체영상의 보급 확산을 위해 안전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기술의 국제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 제작자들이 입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작품제작에 관한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고 일본기준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목적
- 경산성은 3D영상 제작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할 방침

○ JFE엔지니어링, 초고속 충전시스템 개발 판매

- JFE엔지니어링은 전기자동차(EV)의 초고속 충전시스템 시판 발표
- 동시스템은 전지용량의 50%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으로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 설치하여 2015년에는 연간 150억 엔의 매출을 목표

‘일본의 아시아 거점 종합전략’
경제산업성(2010.5)

○ 일본의 입지 경쟁력과 향후 방향성

- 일본의 입지 경쟁력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
- 해외에서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아시아 거점화를 추진
- 스피드 있는 대담한 제도개혁을 통해 사업 환경 매력도 향상
 - * 국제 수준에 맞도록 법인세율 조정, 글로벌 고도인재의 육성·유치
 - * 수송 관련 제도 개선, 인프라 환경 강화 등

○ 일본의 아시아거점화 추진

- 일본은 사업 활동비용, 법인세율, 인센티브 등 아시아지역에서 최악
 - * 생활환경, 연구개발의 질·능력·지적재산권은 아시아 No1이라는 강점을 활용한 정책이 필요
-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도 높은 법인세율, 출입국수속의 복잡함 등이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 일본에서 영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고도인재도 부족

○ 대담한 제도개혁으로 매력 있는 환경 정비

1. 글로벌 인재육성·유치

-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시아를 내수시장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있고 △해외지향성이 강하고 △외국에 대한 적응능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
 - * 일본은 대학과 기업의 글로벌화, 외국의 고도인재 유치를 통해 일본학생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함
 - * 유학생 비율: 도쿄대 8.5%, 홍콩대 24.1%, 싱가포르대 34.9%

2. 수송·물류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신규참여나 증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략적인 open sky를 추진
- 컨테이너항만 경쟁력 강화, 국제물류 원활화를 위한 IT표준화·국제협력 등

3. 조세조약 네트워크 확충

- 외국기업의 일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세리스크를 삭감시켜야 함
- 일본과 상대국이 서로 원천세율을 인하시키고, 이중과세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

* 출처: 경제산업성 HP,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2/downloadfiles/g10042>

【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

【파트너를 찾습니다】

□ 『2010년 1-3월 GDP성장률 예측』 미즈호종합연구소, 4월30일

- 1Q(1-3월기)의 GDP성장률속보 발표. 同期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4%로 2분기 연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 기업 설비투자과 재고 투자,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

http://www.mizuho-ri.co.jp/research/economics/pdf/qe/100430qe_forecast.pdf(출처)

□ 『이길 수 있는 제조업 창설을 위해』 경제산업성, 5월1일

- 일본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급성장하는 신흥국시장의 수요를 확보하면서 일본의 강점인 질이 높은 제품·부품소재의 공급 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열쇠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2/downloadfiles/g100423a04j.pdf>(출처)

□ 『일본기업과 모노즈쿠리의 현재』 소지쯔종합연구소, 5월1일

- 일본기업은 일을 위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 일본기업은 제품의 질에는 신경도 많이 쓰고 연구개발에 집중하지만, 본래 기업은 제품이나 기술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영업력을 모두 포함시킨 경영전체의 품질이 더 중요

<http://www.sojitz-soken.com/jp/send/tameike/pdf/tame442.pdf>(출처)

【금주의 일정】

일자	주요 일정
5/3(월)	○ 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회의 개최(뉴욕) ○ 4월 美 신차판매 발표
5/4(화)	○ 하토야마총리, 오키나와 방문, 지사와 회담
5/5(수)	(어린이 날)
5/6(목)	○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개최 ○ 4월 신차판매대수 발표(자동차판매연합) ○ 3월 세수실적 발표(재무성)
5/7(금)	○ 4월 Monetary base 발표(일본은행) ○ 3월 가계소비상황조사 발표(총무성) ○ 파나소닉 신중장기계획 발표 ○ 4월 美 고용통계 발표

선박(어선)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

- 의뢰기업명 : S기업(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
- 일본 S기업(상사)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메이커:니혼테크노)를 한국내에서 선주(船主)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습니다.

초소형 프레이즈반(밀링머신) 판매 / 부품조달

- 의뢰기업명 : 에노모토 공업
-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

스텐레스단조 부품(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 조달

- 의뢰기업명 : U공업 (기업명 추후 공개)
-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
- 용도 :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
- 향후일정 : 추후 도면제공, 공장견학 예정

특허리포트 판매 희망

- 의뢰기업명 : 네오테크놀로지
-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로지(www.neotechnology.co.jp)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전자분야)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중접합기술, DB기술 제공 희망

- 의뢰기업명 : S기업(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
- 일본의 S기업으로부터 '다중복합기술'과 'DB기술'을 제공(판매)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전재용 선임연구원
Tel : 02-3014-9845 / jyjun@kjc.or.kr

